환경영향평가 제19권 제4호(2010) pp.409~420

연구논문

유산관광 자원에 대한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

–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심으로 –

이영경* · 이병인**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지역환경시스템학과 교수**
(2010년 6월 7일 접수, 2010년 7월 28일 승인)

Evaluation of Conservation and Use Values of Heritage Tourism Resources

- Focused on Sustainable Use -

Yi, Young Kyoung* · Yi, Pyong In**
Prof.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Dongguk University*
Prof. of Regional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7 June 2010; accepted 28 July 2010)

Abstract

Heritage resources have become important social assets as the global interests in heritage tourism increased. Utilization of heritage as unique tourist destin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y, which in turn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ritage conserva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essential quality of heritage resources has been degraded and even destroyed when excessive use was permitted. This undesirable side-effects of heritage tourism have led to the growing concern for sustainable tourism that can contribute to both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heritage.

In order for sustainable tourism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it is crucial for visitors to be aware of the need for heritage conservation because they are the most important consumers of the heri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ome basic information for sustainable tourism by investigating visitors' evaluation of conservation and use values of heritage resources. The study sites were the two Korean traditional temples(Sokrisan Bubjusa and Naejangsan Naejangsa)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used. 390 visitors in Bubjusa and 308 visitors in Naejangsa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the results, sustainable tourism is possible in such heritage areas as traditional temples because the participants had relatively balanced values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use. The WTP for natural conservation value was found to be highest in both temples; visitors may be more agreeable with the heritage conservation plan if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resource is

Corresponding Author: Young Kyoung Y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780-714, Korea
Tel: +82-54-770-2233 E-mail: yiyk@dongguk.ac.kr

emphasized. Also, the use value of heritage could be influenced by the tourism utilization of the area where the heritage was located. If there are no other famous tourist destinations except the heritage in the area, additional plans to develop alternative destination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formulate the agreement on the need to protect the heritage among visitors,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

Keywords : Heritage Conservation, Traditional Temples, Sustainable Tourism, Economic Evaluation, Distribution-Free Model

I. 서 론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문화관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의 한 유형으로 유산지역에 대한 관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산관광은 과거로부터 전승된 유산을 관광하면서(Garrod and Fyall, 2000) 지역의 전통문화와 독특성, 그리고 역사성을 경험하는 것이다(Ashworth, 1994). 유산관광의 주요대상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데, 문화유산은 인공적인 산물로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민족적, 인류학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자연에 의하여 형성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 및 동식물 등을 포함한다(Nuryanti, 1996).

유산관광은 1970년대 중반 유럽에서 대두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994년에 이미 유산 관광수입이 전체 관광수입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Powe and Wills, 1996). 유산자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산을 과거의 것으로 동결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유산보존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유산관광의 초기에는 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보존중심의 유산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방문자의 이용만족을 높이기 위한 이용중심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어 유산의 지속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Apostolakis and Jaffry, 2005). 이러한 변화는 방문자의 이용만족을 높이면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관광지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Otto and Ritchie, 2000)때문이나, 이용가치의 극대화는 유산지역의 본래가치를 저하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Laws, 1998). 실제로 많은 유산지역에서 방문자의 이용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유산에 내재된 본래가치가 재해석되거나 수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산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Nasser, 2003).

유산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유산지역을 보존하면서 관광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객의 만족, 지역주민의 경제적 향상, 그리고 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관광방식이다(Inskeep, 1991).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문화적으로 독특해야 한다(Tosen, 2001). 따라서 지속가능한 유산관광에는 환경과 문화의 보존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방문자가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Drost, 1996; Nasser, 2003; Orbasli, 2000). 방문자의 보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유산의 가장 직접적인 소비자인 방문자의 의식과 이용행태가 유산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면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문자가 유산의 보존과 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산지역 방문자가 가지고 있는 유산자원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유산지역의 지속가

능한 관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이자 주요 관광 목적지인 두 전통사찰(속리산 법주사와 내장산 내장사)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Turnbull 분포 무관모형(distribution-free model)을 적용한 일단계 이선 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여 방문자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평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방문자 의식

Nasser(2003)는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원칙은 크게 보면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은 유산과 주변지역(유산이 속한 전체도시나 마을)을 대상으로 유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Nasser, 2003). 보존계획을 통해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 및 인공구조물, 교통 등이 역사 · 문화적 특성을 갖고 아름다우며 유산적 정체성이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Tiesdell *et al.*, 1996).

사회적 측면은 보존계획의 선행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다양한 사회 주체들(정부, 지역주민, 방문자)이 유산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것을 말한다(Stettner, 1993; Wight, 1995; Nasser, 2003).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보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의 이용은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영향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유발된다(유정우, 2008).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산이용에 앞서 관련주체들 사이에 유산이 대체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공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Drost, 1996; Orbasli, 2000; Nasser, 2003) 보존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방문자인데, 이는 방문자가 유산의 직접적인 소비자로서 유산의 가치를 결정하고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Orbasli, 2000). Drost(1996)도 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행태지침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2. 유산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

유산과 같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큰 재화는 시장을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지불의사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 평가법이 사용되고 있다(Navrud and Ready, 2002). 유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는 가상가치평가법이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가상가치평가법이 유일하게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함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Tuan and Navrud, 2008). 가상가치평가법을 채용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유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상적인 이익을 재화적 가치로 평가하여 유산의 보존이 실질적인 투자임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결부시켜 해석한 예는 없는 실정이다.

과거연구를 검토하면 대부분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함께 다루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한 종류의 가치만을 다룬 사례도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함께 다룬 연구사례는 국외에서는 Powe and Willis(1996), Bill Hansen(1997), Sanz *et al.*(2003)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변일용과 김선범(2007), 그리고 이영경(2008, 2009)의 연구 등이 있다. Powe and Willis(1996)는 영국 Northumbria의 Warkworth성의 이용가치(레크리에이션과 교육)와 보존가치를 방문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는데, 입장료와 보존기금이 사용되었다. Bill Hansen(1997)은 무작위로 선정된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덴마크 Copenhagen에 소재하는 왕립극

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불의사와 극장의 폐쇄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를 세금을 이용하여 평가한 바 있다. Sanz *et al.*(2003)은 스페인 Valladolid의 국립 조각박물관의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를 추정하였는데, 이용가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존가치는 Valladolid 수도의 거주민(전화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변일용과 김선범(2007)은 울산의 4가지 역사문화자원(울산 동헌, 울산왜성, 언양읍성, 이휴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는데, 동헌과 왜성 및 이휴정에서는 입장료가 이용되었으며 언양읍성에서는 복원비용이 이용되었다. 이영경은 불국사 · 석굴암(2008)과 지리산의 화엄사와 천은사(2009)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용가치(입장료)와 보존가치(문화재 보존기금, 자연환경보존기금)를 산정한 바 있다.

보존가치만을 다룬 사례를 보면 Navrud and Strand(1991), Santagata and Signorello (2000), Pollicino and Maddison(2001), Salazar and Marques(2005), 한상현(2007), 최규환과 여호근(2007) 등의 연구 등이 포함된다. Navrud and Strand(1991)는 노르웨이 Trondheim에 위치한 Nidaros 성당의 보존과 복원이 가지는 가치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정하였고(Navrud and Ready, 2002에서 인용), Santagata and Signorello(2000)는 이태리 Naple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개최하는 Napoli Musei Aperti(29개 교회와 8개 궁전들, 8개 역사광장들, 그리고 1개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를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조사한 바 있다. Pollicino and Maddison(2001)은 영국의 Lincoln시의 Lincoln성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청소방법(10년 주기, 40년 주기)를 위한 지불의사를 세금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시와 주변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Salazar and Marques(2005)는 스페인 Godella에 소재하는 아랍 타워의 경제적 가치를 복원기금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는데, Godella 시민들에 대한 방문인터뷰를 채용하였다. 한상현(2007)은 안동 하회마을 방문자를 대상으로 역사경관의 보존가치를 입장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규환과 여호근(2007)은 고령의 대가야와 김해의 금관가야의 고분유적의 보존가치를 방문자(보존기금)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용가치만을 다룬 연구는 문경일과 임창호(2003), 김학용과 김성섭(2003), 정민섭 등(2008)이 포함된다. 문경일과 임창호(2003)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등 4개 고궁의 이용가치(도시여가공간으로서의)를 입장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김학용과 김성섭(2003)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수원화성의 이용가치(입장료)를 추정하였는데, 화성 방문자와 화성주변의 주택단지 거주자가 응답자로 참여하였다. 정민섭 등(2008)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인 최초사 박물관의 이용가치를 입장료로 산정하였는데, 박물관 소재지인 인천 중구를 관광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한 가상가치평가

가상가치평가법은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응답자에게 최대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 WTP)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이다(Provins *et al.*, 2008). 가상가치평가법은 공공재에 대하여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와 가치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매우 크며(김학용과 김성섭, 2003), 여러 국제기구들(World bank, FAO, UNEP, OECD)이 평가도구로서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Santagata and Signorello, 2000).

가상가치평가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동의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의 이선선택형(dichotomous choice method) 설문기법이 선호되어 왔다. 종래의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에서는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 분포를 특정함수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모수적 추정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지불의사금액의 기대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한상열, 2003). 따라서 근래에는 함수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응답자의 답변만을 분석하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데, 여러 방법 중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사용이 가장 많다(한상열, 2003, 2007).

이선선택형 질문방식을 보면 A_j원으로 제시된 가격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형태로 제시된다. 만약 M개의 가격이 제시될 경우, 이를 j로 나타내면 j=0, 1, … M이 되며, j〉k일 경우에는 A_j〉A_k가 된다. 여기서 응답자가 구간 A_{j-1}에서 A_j까지 응답힐 확률을 p_j라고 한다면 p_j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P_j = P(A_{j-1} < W \leq A_j) \text{ for } j=1, ..., M+1 \qquad (식\ 1)$$

실제 설문에서는 응답자는 j=1에서 M까지의 금액 A_j에 대하여 각 각 응답하게 되는데, 제시되는 금액 중 최대제시금액 AM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A_{M+1}=\infty$라고 가정한다면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인 F_j는 식(2)와 같다.

$$F_j = P(W \leq Aj) \text{ for } j=1, ..., M+1, \text{ 여기서 } F_{M+1}=1 \quad (식\ 2)$$

위 식에서 p_j는 각 제시금액사이의 구간확률(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정의되며 F_j-F_{j-1}로 계산된다. 분포무관모형에서 pj는 누적분포확률 Fj와 함께 가치추정에 사용될 수 있는데, 초기의 누적분포함수 $F_0 \equiv 0$로 계산된다. 여기서 Habb and McConnell(1997)에 의한 가치추정과정을 참조하면 먼저 j=1부터 M까지의 Fj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F_j = \dfrac{N_j}{N_j + Y_j}$이며 Y_j는 제시금액에 '예' 라고 응답한 수이고 Nj는 '아니오' 라고 응답한 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j=1부터 시작하여 F_j와 F_{j+1}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만약 F_{j+1}이 F_j보다 크게 되면 이 과정을 계속한다. 만약 F_{j+1}이 F_j보다 작거나 같으면 j와 j+1을 합하여 계산하여 F_{j+1}이 F_j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반복과정에 의한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식 3).

$$E(W) = \int_0^{\infty} W \partial F(W) = \sum_{j=1}^{M+1} \int_{A_{j-1}}^{A_j} W \partial F(W) \qquad (식\ 3)$$

식(3)에서는 제시금액간의 구간면적을 계산하기 전에 확률구간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각각의 구간에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는 lower-bound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구간에서 최소값을 적용할 때 추정되는 지불의사금액의 기대치는 식4와 같다.

$$\begin{aligned} E(LB_{WTP}) &= 0 \cdot P(0 \leq W < A_1) \\ &\quad + A_1 \cdot P(A_1 \leq W < A_2) \\ &\quad + \cdots + A_m P(A_m \leq W < A_{m+1}) \qquad (식\ 4) \\ &= \sum_{j=1}^{M+1} A_{j-1} pj \end{aligned}$$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 법주사와 내장산 국립공원에 소재한 전통사찰 내장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사찰의 지정요건을 보면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이 현저할 경우, 한국 고유의 불교 · 문화 · 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보여줄 경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전형적 모형이 될 경우, 기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이 우리민족의 귀중한 유산자원임을 알 수 있다. 두 전통사찰이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두 사찰 모두 자연적 문화적 특질이 우수하여 유산관광 자원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위치한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이용가치도 높기 때문이다(대한불교조계종, 2007).

구체적으로 전통사찰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서기 553년)에 의신조사가 창건하였으며, 전체 소유 토지(경내지)를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주사 경내지는 속리산 국립공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보존지구 및 천연기념물 207호(망개나무 자생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탐방밀도가 높은 문장대, 신선대. 입석대, 천황봉 등의 경승지와 계곡, 그리고 주요 등산로와 대피소가 모두 법주사 경

내지에 위치하고 있다. 법주사 경내지에 소재한 문화재를 보면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을 비롯하여 쌍사자석등(국보 5호), 석련지(국보 64호), 사천왕석등(보물 15호), 마애여래의상(보물 216호) 등의 국보 · 보물이 있으며 이 외에 원통보전, 세존사리탑, 사천왕문, 희견보살상, 복천암 수암화상탑, 복천암 학조등곡화상탑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전통사찰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서기 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전체 소유토지를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장사 경내지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약 2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경내지 안에 천연기념물 153호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지와 금선계곡, 원적계곡 등 계곡, 서래봉, 장군봉, 신선봉 등 봉우리,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 경승지와 주요 등산로가 위치하고 있다. 내장사 경내지에는 국보와 보물은 없으며, 전북유형 문화재 제 49호로 지정된 이조동종(李朝銅鐘)과 기타 지방기념물 2점이 소재하고 있다.

2. 가상 시나리오의 설정 및 제시가격 결정

두 전통사찰의 이용가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로 정의되었으며 보존가치는 사찰경내지에 소재하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보존가치로 정의되었다. 이용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 '입장료'가 사용되었는데 두 전통사찰 안에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휴양활동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으로 설정되었다. 문화자원 보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불수단은 사찰경내지 문화자원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한 '문화자원 보존기금'으로 설정되었다. 자연자원 보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지불수단은 사찰경내지의 생태자원 및 등산로 등 관광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명되었다.

제시가격은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된 6개 가격범주(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를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제시하고 이선선택형인 '예' 혹은 '아니오'로 지불의사를 표시하게 한 후 지불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때 지불함수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추정방법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적용하여 평균 지불의사금액(mean WTP)과 중앙값 지불의사금액(median WTP)을 산정하였다.

3. 연구 참여자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법주사와 내장사가 속한 국립공원과 해당 사찰의 탐방을 끝낸 방문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다. 법주사에서는 390명이, 내장사에서는 38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1) 평가사찰의 자연적 문화적 특질에 대한 정보제공, 2) 응답자 특성 부분, 2) 이용가치 평가 부분, 3) 문화자원보존가치 평가 부분, 4) 자연자원 보존가치 평가 부분 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유산자원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대상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Noonan, 2003; Throsby, 2003). 따라서 설문지 첫 부분에 평가대상 사찰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찰 경내지 지도를 첨부하여 경내지에 소재하는 주요 자연지역과 명승, 그리고 관광자원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이 제공된 후에 이용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또한 두 가지 보존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문이 진행되기 이전에 각각의 보존기금은 이용입장료 및 다른 보존기금과는 개별임을 설명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772명(법주사 390명, 내장사 388명)의 성별 구성(표 1)을 보면 법주사에서는 남성의 비율(53.6%)이, 내장사에서는 여성의 비율(51.0%)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두 사찰 모두 주 방문자 계층은 2-40대로 분석되고 있으나, 법주사에서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내장사

표 1. 방문객 성별구성비

성 별	법주사(%)	내장사(%)
남	209(53.6%)	190(49.0%)
여	181(46.4%)	198(51.0%)
계	390(100.0%)	388(100.0%)

표 2. 방문객 연령별 구성비*

연 령	법주사(%)	내장사(%)
10대	30(7.7)	37(9.6)
20대	178(45.6)	104(26.9)
30대	89(22.8)	127(32.9)
40대	68(17.4)	91(23.6)
50대	21(5.4)	21(5.4)
60대≧	4(1.2)	6(1.6)
계	390(100.0)	386(100.0)

*: 2명 무응답

표 3. 방문객 방문동기*

방 문 동 기	법주사(%)	내장사(%)
자연경관 감상	223(21.7)	292(30.3)
피로해소 및 휴식	193(18.8)	203(21.1)
사찰 및 문화재 관람	208(20.3)	119(12.4)
야 영	11(1.1)	6(0.6)
기도 및 불공	37(3.6)	11(1.1)
등 산	134(13.1)	105(10.9)
산책 및 산림욕	168(16.4)	157(16.3)
소 풍	52(5.1)	70(7.3)
계	1,026	963

*: 복수응답 허용

에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동기(표 3)를 보면 두 사찰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방문동기의 순서를 보면 법주사에서는 자연경관감상(21.7%), 사찰 및 문화재 감상(20.3%), 피로해소 및 휴식(18.8%), 산책 및 삼림욕(16.4%)으로 나타난 반면에, 내장사에서는 자연경관감상(30.3%), 피로해소 및 휴식(21.1%), 산책 및 삼림욕(16.3%), 사찰 및 문화재 감상(12.4%)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 결과

Turnbull 분포무관 함수를 이용한 가상가치평가에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지 않고 제시된 가격과 이들 가격에 대한 지불의사 확률만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 분석과정에서 F_{j+1}이 F_j보다 작거나 같으면, j와 j+1을 합하여 누적분포함수가 단조증가함수가 될 때까지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두 사찰의 가치는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며, 가치추정 시 Turnbull 누적분포함수인 CDF(F_j)와 Turnbull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PDF(p_j)의 하한(lower-bound)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1) 법주사에 대한 가치 평가

법주사에 대한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법주사의 문화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평균(mean) 지불의사금액은 5,233.2원으로, 중앙값(median)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그리고 문화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 신뢰구간은 2,592.6원~7,873.7원으로 추정되었다. 법주사의 자연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산정결과를 보면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6,441.6원으로, 중앙값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자연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신뢰구간은 3,684.0원~9199.2원으로 평가되었다. 법주사의 이용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6,055.5원으로, 중앙값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그리고 이용가치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 신뢰구간은 3,750.6원~8,360.4원으로 분석되었다.

2) 내장사에 대한 가치평가

내장사에 대한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결과는 표5에 나타나 있다. 내장사의 문화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6,137.0원으로, 중앙값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그리고 문화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 신뢰구간은 3,103.3원~9,170.7원으로 추정되었다. 내장사의 자연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산정결과를 보면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7,804.8원으로, 중앙값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자연자원 보존가치에 대한

표 5. 법주사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가 치 구 분	하 한 범 위	"아니오" 응답수	전체 응답자	"아니오" 확률	Turnbull CDF[a]	Turnbull PDF[b]
이용가치 (use value)	0~100	9	65	.138	.138	.138
	100~500	20	66	.303	pooled	pooled
	500~1,000	15	66	.227	.265	.126
	1,000~5,000	50	65	.769	pooled	pooled
	5,000~10,000	50	66	.757	.763	.498
	10,000~20,000	58	65	.892	.892	.134
	20,000~+∞	–	–	–	1.0000	.107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6,055.5	
	표준오차				1,175.9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3,750.6~8,360.4]	
문화자원 보존가치 (cultural resource preservation value)	0~100	13	65	.200	.200	.200
	100~500	23	66	.348	pooled	pooled
	500~1,000	21	65	.323	.335	.135
	1,000~5,000	45	65	.692	.692	.369
	5,000~10,000	51	66	.772	.772	.080
	10,000~20,000	52	66	.787	.787	.015
	20,000~+∞	–	–	–	–	.212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5,233.2	
	표준오차				1,347.2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2,592.6~7,873.7]	
자연자원 보존가치 (natural resource preservation value)	0~100	9	65	.138	.138	.138
	100~500	18	66	.272	.272	.134
	500~1,000	19	65	.292	.292	.019
	1,000~5,000	44	65	.676	.676	.384
	5,000~10,000	52	66	.787	pooled	pooled
	10,000~20,000	49	66	.742	.765	.088
	20,000~+∞	–	–	–	–	.257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6,441.6	
	표준오차				1,406.0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3,684.0~9,199.2]	

[a] Turnbull CDF(F_j)
[b] Turnbull PDF(p_j), $pj=F_j-F_{j-1}$

평균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신뢰구간은 4,405.2원~11,204.4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내장사의 이용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5,760.1원으로, 중앙값 지불의사금액은 1,000원~5,000원으로, 그리고 이용가치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 기대치의 95% 신뢰구간은 3,019.6원~8,500.6원으로 분석되었다.

V. 결 론

전통사찰 법주사와 내장사에 대한 방문자의 자연자원 보존가치와 문화자원 보존가치, 그리고 이용가치를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두 사찰의 각 가치별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보면 법주사에서는 자연자원 보존가치(6,441.6원), 이용가치(6,055.5원), 문화자원 보존가치(5,233.2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내장사에서는 자연자원 보존가치

표 6. 내장사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가 치 구 분	하 한 범 위	"아니오" 응답수	전체 응답자	"아니오" 확률	Turnbull CDF[a]	Turnbull PDF[b]
이용가치 (use value)	0~100	9	66	.136	.136	.136
	100~500	21	65	.323	.323	.186
	500~1,000	23	64	.359	.359	.036
	1,000~5,000	46	65	.707	.707	.348
	5,000~10,000	55	66	.833	pooled	pooled
	10,000~20,000	50	64	.781	.807	.100
	20,000~+∞	–	–	–	1.0000	.218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5,760.1	
	표준오차				1,398.2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3,019.6~8,500.6]	
문화자원 보존가치 (cultural resource preservation value)	0~100	11	66	.166	.166	.166
	100~500	21	65	.323	.323	.156
	500~1,000	22	66	.333	.333	.010
	1,000~5,000	45	65	.692	.692	.359
	5,000~10,000	46	64	.718	.718	.026
	10,000~20,000	46	64	.718	.718	.000
	20,000~+∞	–	–	–	–	.281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6,137.0	
	표준오차				1,547.8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3,103.3~9,170.7]	
자연자원 보존가치 (natural resource preservation value)	0~100	5	66	.075	.075	.075
	100~500	19	65	.292	.292	.216
	500~1,000	20	64	.312	.312	.020
	1,000~5,000	39	65	.600	.600	.287
	5,000~10,000	47	66	.712	pooled	pooled
	10,000~20,000	43	64	.671	.692	.092
	20,000~+∞	–	–	–	1.000	.328
	하한기준 평균 지불의사 금액				7,804.8	
	표준오차				1,734.5	
	중앙값 지불의사금액				1,000~5,000	
	95% 신뢰구간				[4,405.2~11,204.4]	

[a] Turnbull CDF(F_j)
[b] Turnbull PDF(p_j), $pj=F_j-F_{j-1}$

(7,804.4원), 문화자원 보존가치(6,137.9원), 이용가치(5,760.1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전통사찰의 방문자들이 인식하는 자연자원 보존가치가 문화자원 보존가치나 이용가치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방문자들의 자연자원 보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분석된 두 사찰의 가장 중요한 방문동기가 공통적으로 자연경관감상(법주사: 21.7%, 내장사:30.3%)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경내지의 주요 경승지와 계곡, 그리고 등산로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주사나 내장사와 같은 전통사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보존계획을 수립한다면 방문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연자원 보존가치와는 달리 문화자원 보

표 6. 두 사찰의 보존가치 및 이용가치 추정 결과

가치유형		법주사(원)	내장사(원)
보존가치	자연자원 보존가치	6,441.6	7,804.8
	문화자원 보존가치	5,232.2	6,137.0
이 용 가 치		6,055.5	5,760.1

존가치는 사찰에 따라 이용가치보다 높거나(내장사) 혹은 낮게 평가(법주사)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사찰의 문화재 현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두 사찰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법주사는 내장사보다 83년 정도 먼저 창건된 사찰이면서 사찰내부에 국보 3점, 보물 2점, 7점의 지정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전북유형문화재 1점과 지방기념물 2점만을 보유한 내장사보다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대한불교조계종,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주사의 이용가치가 문화자원 보존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된 이유는 두 가지로 판단되는데; 첫째는 수승한 자연자원과 함께 우수한 문화자원의 존재가 법주사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둘째는 법주사가 소재하는 충청북도 보은군의 관광자원이 열악하고 관광활성화가 낮기 때문이다. 보은지역은 속리산과 법주사를 제외하면 공원이나 기념관과 같은 다른 관광자원이 없어서 내장사가 위치한 정읍시보다 관광자원이 열악하고 관광활성화도 낮은 편t관광자원이 없상대적으로 법주사에 대한 이용요구가 높고 이에 따라 이용가치가 높게 평가되는라 이라고 볼 다른 는데, 이러한 생각은 법주사와 내장사의 이용가치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법주사의 이용가치는 6,055.5원으로 평가된 반면에, 내장사의 이용가치는 5,760.1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내장사의 자연자원 보존가치와 문화자원 보존가치가 법주사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특이한 결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법주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이나 관광활성화가 유산의 이용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계획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유산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용요구가 높기 때문에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존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문자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산의 보존계획과 함께 다른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유산은 국가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삶의 기억을 간직한 곳으로 차세대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공동의 자산으로 이용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유산의 보존을 담보할 수 있는 이용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방문자의 보존의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관광지인 전통사찰 법주사와 내장사를 대상으로 방문자의 보존 및 이용의식을 가상가치평가법을 채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방문대상 유산의 보존과 이용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전통사찰과 같은 유산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의식이 높다는 점과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등이 유산의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으로 유산의 지속가능한 계획 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산지역에 대한 방문자의 의식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설문금액이 다소 작게 범주화 되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산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보다 높은 금액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유

산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치(심미성, 정신적 의미, 상징성, 역사성, 예술성, 진정성 및 고유성)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Throsby, 2003), 문화유산으로부터 얻는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가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이영경, 2009). 따라서 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가치는 시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선호에 근거한 외부적 가치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만 그 기능이 인정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학용, 김성섭, 2003, CVM을 이용한 水原 華城의 이용가치 평가, 관광학연구, 2(3), 157-172.

대한불교조계종, 2007, 국립공원 문화재와 문화재 관람표 바로알기,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

문경일, 임창호, 2003, 도시여가공간으로서 고궁의 이용가치 평가, 국토계획, 38(2), 191-201.

변일용, 김선범, 2007, 울산의 역사문화자원 이용특성 및 가치평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3), 69-78.

유정우, 200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파트너쉽 및 네트워크와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관광학 연구, 32(3), 37-60.

이영경, 2008,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불국사 · 석굴암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1), 35-43.

이영경, 2009,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일단계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적용-,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51-60.

정민섭, 한혜숙, 박선희, 2008, CVM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 연구, 17(3), 175-195.

최규환, 여호근, 2007, 양분선택형 실험적 가상가치평가법(CVM-X)을 적용한 가야고분유적의 경제적 가치평가, 관광 · 레저연구, 19(1), 77-92.

한상열, 2003, 산림휴양가치 평가를 위한 이단계 이선선택형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적용, 한국 산림휴양학회지, 7(1), 1-6.

한상열, 2007, Turnbull 분포무관무형을 이용한 월악산 국립공원의 자산가치 평가, 한국임학회지, 96(3), 283-289.

한상현, 2007) 二重兩分選擇形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가치평가, 관광학연구, 31(1), 443-464.

Apostolakis, A. and Jaffry, S., 2005, A choice modeling application for Greek heritage attrac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3), 309-318.

Ashworth, G. J., 1994, From history to heritage: from heritage to identity: in search of concepts and models, In Ashworth, G.J. and larkham, P.J.(ed)., Building a New Heritage, Routldege, 13-30.

Bille Hansen T., 1997,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royal theatre in copenhagen as a public goo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1, 1-28.

Drost, A., 1996, Developing sustainable tourism for world heritage sit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479-492.

Garrod, B. and Fyall, A., 2000, Managing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682-708.

Haab, T. C. and K. E. McConnell, 1997, Referendum models and negative willingness to pay: alternative solu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2, 251-270.

Inskeep, E., 1991, Tourism Planning: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John Willeys & Sons Inc, pp. 375.

Nasser, N., 2003, Planning for urban heritage

places: reconciling conservation, 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7, 467-479.

Navrud, S., R. Ready, 2002, Valueing cultural heritage: applying environmental valuation techniques to historic building, monuments and artifacts, Edward Elgar Publishing.

Noonan, D. S., 2003, Contingent valuation and cultural resource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 159-176.

Orbasli, A., 2000, Tourists in historic towns: urban conservation and heritage management, E & FN Spon.

Otto, J. E. and Ritchie, J. R. B., 2000,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3), 165-174.

Pollicino, M. and D. Maddison, 2001, Valuing the benefits of cleaning lincoln cathedra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5, 131-148.

Powe, N. A. and K. G. Willis, 1996, Benefits received by visitors to heritage sites: a case study of warkworth castle, Leisure Studies, 15, 259-275.

Provins, A., D. Pearce., E. Ozdemiroglu., S. Mourato. and S. Morse-Jones, 2008, Valuation of the historic environment: the scope for using economic valuation evidence in the appraisal of heritage-related projects, Progress in Planning, 69, 131-175.

Salazar, S. D. S. and J. M. Marques, 2005, Valuing cultural heritage: the social benefits of restoring and old Arab tower,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6, 69-77.

Santagata, W. and G. Signorello, 2000, Contingent valuation of a cultural public good and policy design: the case of "Napoli Musei aperti",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4, 181-204.

Sanz, J. A, L. C. Herrero., and A. M. Bedate, 2003, Contingent valuation and semiparametric methods: a case study of the national museum of sculpture in valladolid, spai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 241-257.

Stettner, A. C., 1993, Community or commodity?: sustainable development in mountain resort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8(1), 8-17.

Throsby, D., 2003, Determining the value of cultural goods: how much (or how little) does contingent valuation tell u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7, 275-285.

Tiesdell, S, Oc, T., and Heath, T., 1996, Revitalizing historic urban quarters, Butterworth-Heinemann.

Tosen, C., 2001, Challenges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world: the case of Turkey, Tourism Management, 22, 289-303.

Tuan, T. H. and S. Navrud., 2008, Capturing the benefits of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9, 326-337.

Tuan, T. H., U. Seenprachawong., and S. Navrud., 2009, Comparing cultural heritage values in south east asia-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in cross-country transfers of economic valu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0, 9-21.

Wight, P., 1995, Sustainable ecotourism: balancing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goals within and ethical framework,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1), 7-22.

최종원고채택 10. 08. 10